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74
----------	-------

발의연월일 : 2019. 11. 4.

발 의 자 : 김성찬 · 황주홍 · 이양수
윤준호 · 경대수 · 오영훈
손금주 · 박주현 · 강석진
김태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1조, 제8장 제목, 제45조, 제56조).

법률 제 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방치하여서는”을 “내버려두어서는”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중 “등화”를 “불빛”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등화”를 “불빛”으로 한다.

제56조제9호 중 “방치한”을 “내버려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해양수산 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 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u>국가안전</u> <u>보장에 있어서</u>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2. ----- ----- <u>국가안전보장을</u> <u>위하여</u> ----- -----
제11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u>방치하여</u> <u>서는</u>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1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 ----- ----- ----- <u>내버려두어서는</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장 <u>등화</u> 및 신호	제8장 <u>불빛</u> 및 신호
제45조(<u>등화</u> 의 제한) ①·② (생 략)	제45조(<u>불빛</u> 의 제한) ①·② (현 행과 같음)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 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 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항로에 <u>방치한</u> 자 9의2. ~ 18. (생략)	제56조(벌칙)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 ----- <u>내버려둔</u> ----- 9의2. ~ 18. (현행과 같음)
--	---